지역 소식통

정읍농업기술센터 '동아 차(茶) · 공예 박람회' 참가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정읍 자생차 알리기에 나선다.

기술센터는 오는 내일부터 30일까지 일산 킨텍스(KINETX)에서 열리는 '동아 차(茶)·공예 박람회'에서 정읍자생차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읍자생차 홍보관은 정읍자생차영농조합법인(대표 박정옥)이 운영하며, 홍보관에서는 정읍 자생차의 역사와 우수성을 관람객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정읍에서 생산되고 있는 녹차와 발효차, 구절초차 등도 전시, 홍보·판매한다.

농업기술센터는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차 산 소비 증가는 물론 차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정읍 자생차를 전국에 널리 알리고, 농가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후 올해 국제 차 문화대전(코엑스), 부산 국제 차 공예 박람회(벡스코) 등에 참가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다문화가족 문화 탐방

정읍시는 25일 다문화가족 45명을 초청해 문화 탐방을 실시했다.

문화 탐방에 참가한 다문화 가족들은 에버랜드에서 펼쳐진 세계 각국 문화를 대표하는 행사를 관람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가족과 함께 즐거운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참가 가족들은 "세계 여러 나라의 고유한 문화를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어 인상 깊었고, 꼭 와보고 싶었던 곳에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가져 좋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다문화가족들이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추진

김제시, 양파·생강 사업대상 품목 지정

김제시는 수입농산물 개방 및 기후변화에 따른 농가경영안정 도모와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17년도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김제시에 따르면 본 사업은 전라북도 삼락농정 "제값 받는 농업 실현"을 위한 최우선사업으로 품목별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시 그 차액의 90%이내를 지원하여 지속적인 영농활동 보장 및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양파와 생강을 사업대상 품목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범위는 품목별 재배면적이 1,000~10,000㎡(3,000평)이하로, 신청대상은 관내 주소지를 두고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며 해당 품목을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김제지평선조합공동사업법인 을 통하여 계통출하를 확인받은 농업인이다.

김제농업기술센터는 25일 관내 생강농가가 참여한 가운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시범사업 기간의 사업성과와 지원기준 앞으로의 개선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유춘기 김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신청 홍보에 최선을 다해 해당 농가가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 사업이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기자

뉴질랜드 방문단, '아동친화도시' 완주 방문

봉동초 '창의발명 & SW교육축제' 참석 관광·문화체험 등 교류 펼쳐

완주 봉동초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뉴질랜드 케이스브룩 및 콥햄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32명이 지난 24일 아동친화도시 완주군을 방문했다.

25일 군에 따르면 봉동초등학교와 뉴질랜드는 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통해 APEC 국제교류협력 프로그램 교류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에 뉴질랜드 학생 등 방문단이 봉동초를 방문한 뒤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군을 찾아 청사를 견학하고 박성일 완주군수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뉴질랜드 학생들은 완주군수와 군에 대해 궁금한 점, 군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누구인지, 군수가 왜 되고 싶었는지 등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됐다.

뉴질랜드 학생들은 봉동초에서 개최되는 완주 창의발명 & SW교육축제(27~28일) 참석해 홈스테이, 관광 및 문화체험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할 계획이다.

박성일 군수는 "봉동초와 뉴질랜드 양 학교 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서로 상생하고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하고 학생들이 미래의 주역으로 자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기자

오늘 완주문예회관서 윤형주·김세환 콘서트

완주군에서 70~80년대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콘서트가 열린다.

완주군은 26일 문화가 있는 날, 저녁 7시에 완주문예회관에서 70~80년대 대중음악의 한 획을 그은 트윈폴리오의 멤버인 윤형주와 김세환의 듀엣 공연이 펼쳐진다고 25일 밝혔다.

세대를 막론하고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있는 이들의 포크 음악은 웃음, 감동, 행복을 주는 행복의 추억여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두 사람의 인기곡인 '조개껍질 묶어', '우리들의 이야기', '길가에 앉아서', '사랑하는 마음' 등의 노래를 들려주는 공연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리게 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다음달 5월에는 어린이를 위한 공연으로 5일 어린이날에는 '피터팬', 5월 문화가 있는 날인 31일에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무대에 올린다.

이용렬 문화예술과장은 "앞으로도 우수한 공연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감성과 행복한 시간을 선물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중복기자

정읍시, 시립도서관 운영위원 신규 위촉

정읍시는 지난 24일 시립도서관 운영위원을 새로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기존 위원들의 임기 만료에 따른 것이다.

당연직 공무원 1명과 위촉직 9명으로 구성된 정읍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는 앞으로 2년 간 도서관 운영 관련 심의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새롭게 위촉된 위원은 조기만 전 동초등학교 교장, 이현근 정읍교육지원청 장학사, 박현수 전북과학대학교 교수, 이준화 정읍신문 국장, 최창환 신태인 보람지역아동센터 상담사, 최은희 한국작가회의 회원, 김해란 도서관자원활동가, 전미정 정읍학무보기자단 회원이다.

이날 위원회는 조기만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대하고, 도서문화사업소장과 시립도서관 담당이 배석한 가운데 업무 보고와 함께 도서관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자리에서 위원들은 5월 개관을 앞둔 '책향기 작은도서관'과 정읍시 13개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와 현재 진행 중인 '독서마라톤', 그리고 '한권의 책 범시민 독서운동' 등 독서진흥 사업의 시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한편 정읍시립도서관으로 중앙도서관과 신태인도서관, 기적의도서관과 13개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 35만5000여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고 100여개의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평균 800여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서관은 이제 책을 빌리고 읽는 공간을 넘어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하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앞으로 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반영, 많은 시민들이 도서관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김제시, 양성평등기금 지원 대상단체 회계교육

김제시(시장 이건식)가 올 해 양성평등기금 지원 대상으로 5개 사업을 선정하고 단체 대표와 회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회계교육을 실시했다.

25일 실시된 이날 교육은 김제시양성평등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 단체의 대표 및 회계 실무자 10명이 참석하였으며 예산기준에 따른 정확하고 투명한 집행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다.

교육을 진행한 김홍기 여성정책담당은 회계처리기준과 회계서식 작성, 사업비 정산, 사후평가 등에 대하여 사례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불러 일으켰으며 참석 단체로 하여금 청렴서약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다짐하기도 하였다.

올해 김제시의 지원대상 사업은 꿈이있는 여성리더 만들기(김제시여성단체협의회), 성인지 정책의 이해와 모니터링 및 홍보(김제여성포럼), 찾아가는 효도밥상(김제시여성자원활동센터), 독거노인, 노인정 어르신을 위한 힐링사업(느티나무봉사대), 홀라댄스로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 만들기(어울림) 등 5개 단체 사업이며 1,75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김제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 및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 2003년 5억 원을 출연, 이자 수익금(약 1,700만원)으로 매년 공모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회계교육을 시작으로 11월 사업 종료 전까지 컨설팅과 개별 점검을 통해 사업의 내실을 기할 방침이다.

/김제=곽노태기자

김제경찰서

반사 스프레이 활용 교통사고 예방 활동 전개

김제경찰서는 지난 24일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반사 스프레이'를 구입하였으며 이 것을 교통 및 각 지구대·파출소 외근활동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

'반사스프레이'는 자전거, 전동차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의류에 분사함으로써 야간 활동시 운전자의 시인성이 향상되어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제시 관내에서 작년한해 발생한 교통사망사고 22명중 14명(63.6%)이 노인층(65세이상) 이며, 2017년 현재까지 발생한 6명의 교통사망사고 중 어르신이 5명(83.3%)으로 높게 발생하고 있다.

임진옥 경비교통과장은 "앞으로도 반사스프레이 뿐만 아니라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홍보물품을 활용하여 홍보에 나설 것이며, 또한 행락철 교통 3대 반칙 행위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단속 활동을 병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기자